

## 평행한 경고 - 번호 4

신앙의 기초와 망각의 위험: 예언과 역사에서 얻는 교훈

Jeff Pippenger

2023-08-08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교훈을 깨닫게 하겠느냐? 젓을 댄 자들, 젓가슴에서 댄 자들에게로다.

교훈 위에 교훈, 또 교훈 위에 교훈이 있어야 하고; 줄 위에 줄, 또 줄 위에 줄이 이어져야 하며;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더듬거리는 입술과 다른 언어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너희가 피곤한 자를 쉬게 할 수 있는 안식이요, 이것이 새롭게 함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그들에게 교훈 위에 교훈, 교훈 위에 교훈, 줄 위에 줄, 줄 위에 줄, 여기 조금 저기 조금이 되어,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서지고 울무에 걸려 사로잡히게 하려 하셨다. 이사야 28:9-13.

이사야의 이 구절들은 하박국의 판들에서 거듭 다루어져 왔다. 여기서는 현재 논의에 보태기 위해 이전 구절들에서 한두 가지 요점만 간단히 짚고자 한다. 이 본문은 시험에 실패하는 한 백성을 보여 주는데, 그들은 "가서, 뒤로 넘어지고, 부서지고, 울무에 걸리고, 잡혀간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가르쳐' '지식'이나 '교리'를 '이해'하게 하시려 하는가에 관한 시험에서 실패한 백성이었다. 그것은 지식의 증가를 이해하는 데 기초한 시험이었으므로, 모든 선지자들이 세상의 끝에 대해 일치하며 그것을 지목하는 바와 같이 다니엘서 12장에서 지혜로운 자와 악한 자를 구분한 바로 그 동일한 시험이었다. 다니엘서 12장에서 '지혜로운 자'는 이해하지만, '악한 자'는 지식의 증가를 이해하지 못한다.

이사야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들이 '듣지 않으려 했던' '주의 말씀'으로 시험받았다. 그리고 그들이 거절했으며 '지식'의 증가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었을 그 구체적인 '주의 말씀'은, 예언적 역사들을 올바르게 정렬하는 방법을 규정하는 성경적 규칙이었다. 이사야의 본문에서 넘어지는 자들은, 예언적 역사를 이해하려면 그 줄을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찾아야 한다고 밝히는 그 규칙을 거부했다. 그들이 거부한 시험을 낳은 주의 말씀은, 여기저기에서 예언의 줄들을 선택한 다음, 같은 주제를 다루는 다른 예언적 역사의 줄들과 나란히 그 선택된 줄들 가운데 하나를 배치하는 기법이었다. 이와 같이 줄 위에 줄을 쌓아 놓는 시도의 성공은, 참된 예언 해석 규칙들을 적용하는 데 달려 있다. 그 규칙들은 '규범들'로서 또한 모아져야 하며, 성경 곳곳에 흩어져 있다. 시험에 실패하는 이사야의 처녀들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것, 곧 역사는 반복된다는 사실을 잊기 때문이다.

"우리는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길과 우리의 과거 역사 속에서의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릴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래를 두려워할 것이 없다." Life Sketches, 196.

하나님은 혼란의 근원이 아니시며, 그 사실의 확고한 근거 가운데 하나는 성경의 모든 선지자가 동일한 예언의 흐름을 지목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들이 그 흐름에서 똑같은 사건들을 모두 보는 것은 아니지만, 세상 끝에 일어날 사건들의 흐름은 언제나 동일하다. 그것은 은혜의 기회가 마감되는 때로 이어지는 사건들이며, 그 뒤를 일곱 마지막 재앙이 있고, 그 끝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결말을 맺는다. 어떤 선지자의 이야기는 그 역사적 흐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에 관한 것일 수 있지만, 또 다른 선지자의 증언은 하나님의 불신실한 백성이나 미국, 바티칸, 유엔, 세상의 상인들, 또는 이슬람에 관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언제나 같은 흐름이다.

말라기서의 엘리야 기별과 요한계시록 1장, 14장, 18장에 제시된 기별들, 그리고 다니엘서 11장과 12장의 기별은 모두 같은 기별이다. 이들은 모두 동일한 역사적 흐름에 속하지만, 각기 그 서사에 고유한 기여를 한다.

그 특별한 메시지에 관해 거의 모두가 오해하는 점은, 그것이 인류의 유예 기간이 끝나기 직전해야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드러난다는 사실이다. 특별한 메시지가 언제나 곧 다가올 유예 기간의 종결을 경고한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성경에서 아마도 가장 분명한 유예 기간 종결의 예를 살펴보려 한다.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게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게 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요한계시록 22:11.

하늘 성소에서 11절의 말씀으로 은혜 기간의 끝이 선포되기 전에, 하나님의 종들에게 열려지는 요한계시록에서 온 특별한 경고의 예언 기별이 있을 것이다.

또 그가 내게 이르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게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하며,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게 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요한계시록 22:10, 11.

마지막 일곱 재앙 직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알아보게 될 특별한 예언적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 그 "때가 임박했을 때" 봉인되어 있던 "이 책의 예언"(요한계시록의 예언)이 풀릴 것이다. 요한계시록에서 봉인된 유일한 예언은 일곱 우리의 예언이다.

또 보니 다른 힘센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구름을 입었고 그의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었으며 그의 얼굴은 해 같고 그의 두 발은 불기둥 같았다. 그의 손에는 펼쳐진 작은 책이 있었고, 그는 오른발은 바다 위에, 왼발은 땅 위에 두었다. 그리고 사자가 포효하듯 큰 음성으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리가 소리를 내었다. 일곱 우리가 소리를 낸 뒤에 내가 기록하려 하였으나,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 내게 이르되, 일곱 우리가 말한 것들을 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였다. 요한계시록 10:1-4.

인류에 대한 은혜의 기회가 끝나기 직전, 곧 "때가 가까웠다"고 할 그때에,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밝혀 주는 특별한 성경 진리의 봉함이 풀릴 것이다. 요한계시록 10장의 힘센 천사는 사자처럼 부르짖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요한에게 지시하신 힘센 천사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셨다. 오른발을 바다에, 왼발을 육지에 디디신 것은 사탄과의 대쟁투의 마무리 장면들에서 그분이 수행하시는 역할을 보여 준다. 이 자세는 온 땅에 대한 그분의 최고의 권능과 권위를 나타낸다. 그 대쟁투는 시대를 거듭할수록 더욱 강력하고 단호해졌으며, 어둠의 권세의 노련한

활동이 절정에 이르는 결말의 장면들까지 그렇게 계속될 것이다. 사탄은 악한 사람들과 연합하여 온 세상과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교회들을 미혹할 것이다. 그러나 그 힘센 천사는 주의를 요구하신다. 그는 큰 음성으로 외치신다. 그는 사탄과 연합하여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자신의 음성의 권능과 권위를 보여 주실 것이다.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성경주석 7권, 971쪽.

마지막 때에 "사탄"이 미혹하는 "교회"들은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미혹당한다. 화이트 자매가 방금 언급한 데살로니가후서의 그 구절에서 "진리"라는 단어는 "진리"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파생된 기본 그리스어 단어인데, 그 히브리어 단어는 세 개의 히브리 문자로 이루어져 알파와 오메가를 상징한다. 최초 언급의 원칙과 연결되어 그리스도의 성품의 한 속성을 나타내는 그 진리가 거부되어, 그 결과로 강한 미혹을 낳는 바로 그 진리라는 것을 보여 주는 성경적 증거가 있는가?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우리가 그분께 모여 함께 모이는 일로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가 마음에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영으로나 말로나 우리에게서 온 것처럼 보이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왔다고 하여 불안해하지 말라.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먼저 배교가 일어나고,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않고서는 그 날은 오지 않는다. 그는 신이라 불리거나 숭배받는 모든 것 위에 자신을 높이며 대적하여, 하나님인 양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신이 하나님임을 드러낸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제 그가 자기 때에 드러나도록 무엇이 지금 그를 막고 있는지 너희가 알고 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지금 막고 있는 이가 옮겨질 때까지는 계속 막을 것이다. 그때에 그 불법한 자가 드러날 것이니, 주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소멸하시고 그 오심의 광채로 멸하실 것이다. 그는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으로 오며, 멸망하는 자들에게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임한다. 이는 그들이 구원을 받도록 진리를 사랑함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사 거짓을 믿게 하시고,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기뻐한 모든 자들이 정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데살로니가후서 2:1-12.

데살로니가서의 이 구절은 하박국의 표들에서 자주 다루어졌으므로, 여기서는 간단히 언급하는 데 그치겠다. 화이트 자매가 "사탄의 놀라운 행위"라고 부르는 것은 바울이 말한 "모든 권능과 표징과 거짓 이적을 동반한 사탄의 역사"이다. 화이트 자매와 바울이 지적한 그 기만적인 역사는 미국에서의 일요일 법령에서 시작된다.

"하나님의 율법을 위반하여 교황제도의 시행을 강제하는 칙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는 의에서 완전히 이탈하게 될 것이다. 개신교가 깊은 구렁을 가로질러 로마 권세의 손을 붙잡으려고 손을 뻗고, 심연을 넘어 강신술과 손을 맞잡으며, 이 삼중 연합의 영향 아래에서 우리나라는 개신교적이며 공화정 정부로서의 헌법의 모든 원칙을 부인하고 교황권의 거짓과 미혹을 퍼뜨리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게 될 때, 우리는 사탄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가 왔고 종말이 가까웠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증언, 5권, 451쪽.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데살로니가서의 이 구절에서 바울은 세상 끝에 나타날 교황을 네 가지 서로 다른 명칭으로 지칭한다. 교황은 "죄의 사람"이며, "멸망의 아들"이며, "불법의 비밀"이고 "그 사악한 자"이다. 바울은 이 네 가지 명칭 외에도 교황의 몇 가지 특징을 덧붙이는데, (바울의 시대에는 아직 미래에 있을 존재였던) 교황이 "제때에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린다.

교황은 "그의 때에 드러나게 될 것"이며, 이는 결코 유일한 성경적 진리는 아니지만 가장 명확한 성경적 증거이다. 로마 교회의 교황이 성경 예언의 적그리스도라는 가장 명확한 성경적 진리는, 교황권이 세상을 지배할 "때", 곧 인류가 암흑시대라고 부르는 바로 그 "때"를 특정하는 성경 속 일곱 가지 서로 다른 직접적 언급에 의해 확립된다. 성경은 교황권이 세상을 지배할 정확한 "때", 즉 538년부터 1798년까지의 기간을 거듭 특정함으로써 교황을 드러낸다. 바울은 그가 자기 때에 드러나리라고 말했다.

바울은 또한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예배되는 모든 것 위에 자기를 대적하고 높이며, 하나님인 양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신이 하나님임을 드러내는" 자가 교황이라고 지적한다. 이것은 다른 여러 점과 더불어, 성경 예언의 적그리스도가 종교적 인물임을 보여 준다. 그는 히틀러나 알렉산더 대왕이 아니다. 따라서 교황에 대한 규정은 더욱 좁혀지는데, 그는 단순한 종교적 폭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다고 자처하는 종교적 폭군이다. 적그리스도는 자신이 기독교 교회 안에 자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바울과 다니엘에 따르면, 교황이 그가 스스로 기독교라고 주장하는 교회 안에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보좌에 앉고 만물 위에 자신을 높이려 했던 사탄의 성품을 드러낸다. 내가 바울과 다니엘을 말하는 것은, 대부분의 성경 주석가들이 바울이 교황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그가 철저한 자기애자라는 점임을 보여 줄 때, 그것이 다니엘서 11장에서 다니엘이 교황을 묘사한 내용을 바울이 단순히 인용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이다. 그 장에서 다니엘은 이렇게 기록한다:

그 왕은 자기 뜻대로 행할 것이며, 자기를 높이고 모든 신들 위에 자신을 높이며, 신들의 하나님을 대적하여 기이한 말들을 할 것이며, 진노가 마칠 때까지 형통하리니, 이는 작정된 일이 이루어질 것임이라. 다니엘 11:36.

바울이 교황의 자기애적 성격을 다루면서, 그는 다니엘의 구절을 의역하여, 바로 교황이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경배받는 모든 것에 대하여 대적하고, 그 위로 자신을 높이며, 그리하여 그가 하나님인 양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신이 하나님임을 드러낸다"고 말한다. 교황권의 성격을 지목하는 다니엘의 그 구절은 또한 교황권이 적그리스도였음을 "드러내도록" 마련된 "때"를 언급하며, 그는 교황권이 "분노가 이루어질 때까지" "형통할" 것이라고 밝힌다.

"진노"는 1798년에 끝났으므로, 그 구절에서 다니엘은(비록 이것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서 1260년의 역사가 언급된 일곱 곳의 직접적인 구절 가운데 하나는 아니지만) 교황권을 직접 지목하고, 요한의 표현대로 그 권세가 1798년에 "치명적인 상처"를 받았다고 명시한다. 따라서 그 구절은 통치 기간의 길이는 밝히지 않지만, 교황 통치 시대의 종결을 지적한다.

이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이 편지를 쓰고 있던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이미 이 특별한 진리를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538년에 교황권이 세계를 장악하는 것을 억제하던 권세를 또한 지목한다. 그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물었다. 그는 그들에게, 교황권이 '자기 때에 드러나기까지' 그것을 '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즉, 제지한다는 뜻)를 이미 알고 있음을 상기시킨다. 교황권이 세계를 장악하지 못하도록 앞서 존재하며 이를 막았던 권세는, 바울이 그 편지를 쓸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권세였다. 그것은 이교 로마였다. 바울은 교황권이 세계를 장악하기 위해서는 이교 로마가 '물러나게 될 것'이라고 기록했다.

바로 이러한 이해 때문에 윌리엄 밀러는 다니엘서에서 'the daily'로 상징된 권세가 이교 로마임을 깨닫게 되었다. 재림주의는 그 체계, 곧 윌리엄 밀러의 모든 예언적 이해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대한 그의 이해에 기초해 있었으며, 그 두 책이 이교 로마와 교황 로마라는 두 가지 황폐하게 하는 권세를 다룬다는 것을 인정한다. 데살로니가서의 구절에서, 밀러는 이미 (그의 시대의 모든 개신교인들처럼) 교황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교황 통치에 앞선 역사적 권세가 이교 로마였다는 것과 바울이 교황권이 세상의 왕좌에 오르기 전에 이교 로마가 제거될 것이라고 진술했음을 인식했을 때, 그는 이것을 다니엘서와 'the daily'와 연결지었으며, 거기에는 교황권이 세계를 장악하기 전에 그 'the daily'가 '제거되어야' 한다는 언급이 세 차례 나온다고 보았다. 바울의 증언은 다니엘서의 'the daily'가 이교 로마임을 밀러가 보게 해 주었고, 그 후 그는 다니엘서의 두 가지 황폐하게 하는 권세가 이교 로마와 교황 로마임을 인식할 수 있었다. 이 진리는 밀러주의 운동의 기초를 이룬다. 오늘날 재림주의는 분명히 밀러의 사역을 거부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다니엘서의 'the daily'에 대한 밀러의 이해의 발전을 이렇게 개관하는 것이, 바울이 교황 권세의 대두를 그것이 제거될 때까지 '억제한다'고 말한 권세가 이교 로마였음을 입증하며, 이것이 이러한 주제들에 대한 밀러의 사고에 대한 올바른 분석임을 보여 준다고 이해하고 있다.

다니엘서에서 '상번제'의 진리를 이교 로마를 상징하는 것으로, 그리고 그것이 다니엘이 '멸망의 가증한 것'으로 묘사한 교황 로마에 앞선 것임으로 이해하자, 밀러는 성경 예언에 나오는 왕국들과 연관된 예언적 기간들을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통찰로 그의 마음이 열리면서 그는 재림주의의 기초를 이루는 일련의 진리들을 정립하였다. 그 진리들은 1843년과 1850년의 개척자 도표, 곧 두 표에 새겨졌다. 그 진리들은 재림주의의 기초이며 '때'의 인식에 근거해 있었다. 그 기초가 언제 놓였는지에 대한 역사가 하박국의 두 표에서 주요하게 논의된다.

하박국의 도표들에서 지적되지 않은 것은, 시간에 근거한 그 기초들이 하나의 구조를 형성했으며, 그 구조가 마지막 세대로 하여금 기초로 표현되었던 진리들이 있었음을 인식하는 데 필요한 관점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기초에 맨 먼저 놓인 첫 돌이 된 최초의 진리가 있었지만, 다니엘서의 "the daily"는 밀러의 첫 진리가 아니었다. 밀러가 세우도록 일으킴을 받은 그 기초에서 첫 돌이 될 진리는 레위기 26장의 "일곱 때"였지만, "the daily"의 진리가 없었다면 밀러는 첫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기 위해 인식해야 했던 예언의 구조를 알아보지 못했을 것이다. 그가 세운 구조는 예언을 두 가지 황폐하게 하는 권세의 관점에서 배치하는 것이었다. 밀러는 용(이교 로마)과 짐승(교황권)을 다루고 있었다. 셋째 천사는 용(국제연합), 짐승(교황권), 그리고 거짓 선지자(미국)를 다룬다.

어떤 사람이 밀러파가 두 장의 거룩한 개척자 도표에 제시한 시간에 관한 예언들을 일부가 아니라 전부, 곧 모두 받아들여야 하면, 그 사람은 그 진리들을 개인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한 번도 그것들을 살펴본 적이 없다면, 어떻게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기초적인 진리들을 조사하는 사람들이 그 진리들을 시험해 보는 일을 자신의 책임으로 삼고, 그 후 그 모든 진리를 받아들인다면, 그들은 모래 위가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이다.

시온의 성벽 위에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서 있는 이들은 백성 앞에 놓인 위험을 볼 수 있고, 진리와 오류, 의와 불의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경고가 왔다. 1842년, 1843년, 1844년에 그 기별이 온 이래 우리가 그 위에 세워 온 믿음의 기초를 흔들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나는 이 기별 안에 있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빛에 충실한 채 세상 앞에서 왔다. 우리는 날마다 간절한 기도로 주님을 구하며 빛을 찾던 그때 우리의 발이 놓였던 그 토대에서 발을 떼려는 생각이 없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빛을 내가 포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것은 영원한 반석과 같아야 한다. 그 빛은 주어진 때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왔다.” 리뷰 앤드 헤럴드, 1903년 4월 14일.

듣고자 하는 이들이 밀러주의자들의 역사 속 시간 예언을 분석하려면, 그 시간 예언이 나타내는 역사적 기간들을 살펴보는 일이 필요하다. 이는 연대표 위에 사건들을 표시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예언 연구자가, 밀러주의자들이 성경에서 찾아내어 이후의 역사 기록이 뒷받침한 이러한 예언적 기간들을 검토하는 수준의 탐구 단계에 이르면, 그는 그 시간 예언의 시작 시기의 역사가 같은 예언의 끝 시기의 역사를 상징적으로 예표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된다. 그 관점에서 그는 역사가 반복된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 그러한 이해가 자리 잡으면, 그는 예수께서 시작을 통해 끝을 보여 주신다는 것도 보아야 한다.

그리고 세상의 끝을 ‘성전 건축’으로 묘사하는 예언적 전개에서, 학생은 기초 위에 세워진 성전 위에 놓이는 최종 머릿돌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는 밀러가 드러내는 데 쓰임받았던 성전의 기초가(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니,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예언적 시간에 근거한 기초였음을 깨달아야 한다. 예수께서 처음을 통해 끝을 보여 주시기 때문에, 학생은 또한 성전의 마지막 돌인 머릿돌이 기초와 상응해야 함을 보아야 한다. 밀러에게 성전의 기초는 예언적 시간이었지만, 그 기초는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였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었고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운다. 그러나 각 사람은 어떻게 그 위에 세우는지 주의하라. 이미 닦아 둔 터 외에는 아무도 다른 터를 닦아 둘 수 없으니, 그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고린도전서 3:10, 11.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자신이 그 기초 또는 시작을 놓은 성전을 세우는 일로 설명한다. 그는 이방인의 사도였고, 기독교 교회의 기초를 놓는 데 사용되었다. 같은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의 몸이 성령의 성전임을 또한 밝힌다. 솔로몬의 성전과 광야의 성소도 있으며, 이들 모두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로 표상된다. 밀러는 재림주의 성전의 기초를 세우도록 사용되었고, 그 성전의 기초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성전은 영적이고 예언적인 재료들로 세워진다.

그러므로 머릿돌도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지만, 그 머릿돌에는 또한 최우선의 예언 원칙이 포함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밀러에게는 규칙들의 한 묶음이 주어졌고, 그 안에는 밀러주의자들의 최우선 원칙, 곧 '일일일년' 원칙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그 원칙이 없으면 시간 예언을 인정할 수 없고, 그러므로 토대도 없다.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기초)를 대표하는 대응물이 있어야 하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세우는 일련의 규칙들 가운데서 최우선 원칙이어야 한다. 그 원칙은 물론 '최초 언급의 원칙'으로, 처음부터 끝을 드러내시는 그리스도의 성품의 속성을 나타낸다.

데살로니가후서에 따르면, 구원을 받도록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은, 구약에서 '진리'로 번역되는 세 글자로 이루어진 히브리어 단어에서 유래한 그리스어 단어로 표현된 진리를 거부하였다. 거짓을 믿었기 때문에 강한 미혹을 받는 그 무리는, 두 개의 거룩한 도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재림주의의 토대인 옛 길로 돌아가기를 거부하였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동안 살펴보고 있는 본문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요한에게 지시하신 힘센 천사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셨다. 오른발을 바다에, 왼발을 육지에 디디신 것은 사탄과의 대쟁투의 마무리 장면들에서 그분이 수행하시는 역할을 보여 준다. 이 자세는 온 땅에 대한 그분의 최고의 권능과 권위를 나타낸다. 그 대쟁투는 시대를 거듭할수록 더욱 강력하고 단호해졌으며, 어둠의 권세의 노련한 활동이 절정에 이르는 결말의 장면들까지 그렇게 계속될 것이다. 사탄은 악한 사람들과 연합하여 온 세상과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교회들을 미혹할 것이다. 그러나 그 힘센 천사는 주의를 요구하신다. 그는 큰 음성으로 외치신다. 그는 사탄과 연합하여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자신의 음성의 권능과 권위를 보여 주실 것이다.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성경주석 7권, 971쪽.

이전 단락에서 말하는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 교회들'은 다니엘서와 마태복음의 악하고 미련한 처녀들이며, 아모스 8장 12절은 그들이 너무 늦었을 때 하나님의 최후의 경고 기별을 찾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힌다. 그들이 재림주의의 기초에 관한 거짓을 믿었기 때문에 이미 너무 늦은 것이다. 재림주의는 1863년에 처음 그 거짓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그때부터는 줄곧 내리막길이었다.

제가 지금 쓰려는 것은 전적으로 주관적일지 모르지만, 1863년 이후 재림교회에 어떤 새로운 예언적 빛이 도입되었습니까? 엘렌 화잇은 존스와 왜고너의 1888년 기별에 대해, 그것이 자신이 수년 동안 전해 오던 기별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기별은 1888년에 재림교회 안에서 새롭고 충격적으로 들렸을지 모르지만, 그 새로움과 충격은 새로운 기별 때문이 아니라 1863년 이래 하나님의 백성 위에 내려앉아 오던 영적 눈멀음 때문에 생겨난 것이었습니다.

엘렌 화잇은 1863년 이전에 재림운동이 라오디게아 상태에 있다고 규정했으므로, 라오디게아의 눈멀음이 1863년 이전부터 이미 재림운동에 스며들고 있었다. 그러나 1863년에 교회는 레위기 26장의 '일곱 때'에 관한 진리를 공식적으로 제쳐두었는데, 이는 밀러가 가장 먼저 발견한 '기간 예언'이었다. 1863년 이후로 재림운동 안에서 나타난 예언의 빛은 전혀 없었다! 무엇이 달라진 것인가?

예언적 시간에 기초하여 세워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던 성전 기초의 맨 첫 돌은 1863년에 재림주의에 의해 제쳐졌다. 자신을 '기묘한 계수자' 팔모니로 나타내신 그리스도께서 다니엘서에서 제시하신 시간에 기초하여 밀러가 성전의 기초에 놓았던 그 첫 돌은 거절되어 제쳐졌다. 밀러가 발견한 바로 그 맨 처음 돌은...

그리스도께서는 '버림받은 돌'에 대한 예언을 인용하시면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실제로 있었던 한 사건을 가리키셨다. 그 사건은 첫 성전 건축과 관련이 있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초림 당시 특별한 적용이 있었고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호소력이 있었지만, 우리에게도 교훈을 준다.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질 때, 성전의 벽과 기초에 쓰일 거대한 돌들은 채석장에서 모두 완전히 다듬어졌고, 건축 현장으로 옮겨온 뒤에는 어떤 연장도 그 위에 대지 않기로 되어 있었으므로, 일꾼들은 그것들을 제자리에 놓기만 하면 되었다. 기초에 쓰기 위해 유난히 크고 특이한 모양의 돌 하나가 가져와졌지만, 일꾼들은 그 돌이 들어갈 자리를 찾지 못했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돌은 사용되지 않은 채 작업에 방해가 되어 그들에게 성가신 존재였다. 오랫동안 그 돌은 버림받은 돌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건축자들이 모퉁잇돌을 놓을 차례가 되었을 때, 그 특정한 자리를 차지하여 그 위에 놓일 막대한 무게를 견딜 수 있을 만큼 충분한 크기와 강도, 그리고 알맞은 형태를 지닌 돌을 찾느라 오랫동안 찾아 헤매었다. 이 중요한 자리에 현명하지 못한 선택을 하면 건물 전체의 안전이 위태로워질 것이었다. 그들은 햇빛과 서리와 폭풍의 영향을 견딜 수 있는 돌을 찾아야 했다. 여러 차례 몇몇 돌들을 골라 보았으나, 엄청난 하중이 가해지자 산산이 부서졌다. 다른 돌들은 갑작스러운 기상 변화의 시험을 견디지 못했다. 그러나 마침내 오랫동안 버려져 있던 그 돌에 주의가 돌려졌다. 그 돌은 공기와 햇빛과 폭풍에 노출되어 있었지만, 미세한 균열 하나도 드러내지 않았다. 건축자들이 그 돌을 살펴보았다. 그 돌은 하나를 제외한 모든 시험을 견뎌 냈다. 만일 심한 압력의 시험도 견딜 수 있다면, 그들은 그것을 모퉁잇돌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시험을 해 보았다. 그 돌은 받아들여져 지정된 자리에 옮겨졌고, 정확히 들어맞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예언적 환상 가운데 이사야는 이 돌이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을 보았다. 그는 말한다:

'만군의 여호와, 그분을 거룩히 하라. 그분을 너희의 두려움으로 삼고, 그분을 너희의 무서움으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과 걸림 바위가 되시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덧과 울무가 되시리라. 그들 가운데 많은 이가 걸려 넘어지고, 쓰러지며, 부서지고, 울무에 걸려, 사로잡히리라.' 예언의 환상은 선지자를 초림의 때로 데려가, 솔로몬의 성전에서 머리 모퉁잇돌이 받은 취급이 상징했던 시련과 시험을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실 것을 보여 준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시온에 한 돌을 기초로 놓으니, 시험을 거친 돌이요, 귀한 모퉁잇돌이요, 견고한 기초라. 믿는 자는 서두르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8:13-15; 28:16.

무한한 지혜로 하나님께서는 기초석을 택하시고 친히 그것을 놓으셨다. 그분은 그것을 '견고한 기초'라 부르셨다. 온 세상이 그 위에 자기들의 짐과 슬픔을 내려놓아도, 그것은 모두를 견딜 수 있다. 사람들은 그 위에 온전히 안전하게 건축할 수 있다. 그리스도는 '시련을 견딘 돌'이시다. 그분을 신뢰하는 자를 그분은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신다. 그분은 모든 시험을 감당하셨다. 그분은 아담의 죄책과 그의 후손들의 죄책이 가하는 압박을 견디셨고, 악의 권세를 넉넉히 이기셨다. 그분은

회개하는 모든 죄인이 그분께 맡긴 짐을 지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책에 눌린 마음은 쉼을 얻었다. 그분은 그 견고한 기초이시다. 그분을 의지처로 삼는 모든 이가 완전한 안전 속에 쉰다.

이사야의 예언에서 그리스도는 견고한 터이자 거치는 돌로 선포된다. 사도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면서, 그리스도가 누구에게는 기초석이 되고 누구에게는 거치는 바위가 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너희가 참으로 주께서 은혜로우심을 맛보았으면,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살아 있는 돌이신 그분께 나아가라. 너희도 산 돌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드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시온에 택하신 보배로운 모퉁이의 머릿돌을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그분이 보배이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고, 또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나니, 그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 넘어지는 자들이라. 베드로전서 2:3-8.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는 견고한 기초이시다. 이들은 그 반석에 넘어져 부서지는 자들이다. 여기에는 그리스도께 대한 복종과 그분에 대한 믿음이 나타난다. 그 반석에 넘어져 부서진다는 것은 우리의 자기의를 버리고, 어린아이의 겸손으로 우리의 허물을 회개하며, 그분의 용서하시는 사랑을 믿고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믿음과 순종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기초로 삼아 그 위에 세워 간다.

이 살아 있는 돌 위에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집을 지을 수 있다. 이는 우리가 안전하게 집을 지을 수 있는 유일한 기초이다. 이 기초는 모든 이를 품기에 넓고, 온 세상의 무게와 짐을 떠받치기에 충분히 견고하다. 그리고 살아 있는 돌이신 그리스도와와의 연합을 통해, 이 기초 위에 집을 짓는 모든 이들은 살아 있는 돌이 된다. 많은 이들이 자신의 노력으로 깎이고, 연마되고, 아름답게 꾸며지지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지 않기에 '살아 있는 돌'이 될 수는 없다. 이 연합 없이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이는 유혹의 폭풍을 견뎌낼 수 없다. 우리의 영원한 안전은 확실한 터 위에 집을 짓는 데 달려 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시험되지 않은 기초 위에 집을 짓고 있다. 비가 내리고 광풍이 몰아치고 홍수가 밀려올 때, 그들의 집은 무너질 것이다. 영원한 반석, 곧 모퉁이의 머릿돌이신 그리스도 예수 위에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말씀을 거역하여 걸려 넘어지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반석이다. 그러나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바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버림받은 돌과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지상 사역 동안 무시와 학대를 견디셨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았으며, 슬픔의 사람으로서 고통을 익히 아는 자였다: ... 그는 멸시를 받았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이사야 53:3. 그러나 그분이 영광을 받으실 때가 가까웠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분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실 것이다. 로마서 1:4. 그분의 재림 때 그분은 하늘과 땅의 주로 나타나실 것이다. 지금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하는 자들도 그분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온 우주 앞에서 버림받은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것이다.

또 "그것이 누구에게 떨어지든지, 그를 가루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그리스도를 거절한 백성은 곧 그들의 성과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었다. 그들의 영광은 꺾이고 바람 앞의 티끌처럼 흩어질 것이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을 멸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그들을 멸한 것은, 그들이 그 위에 세웠더라면 그들의 안전이 되었을 그 반석이었다. 멸시된 하나님의 선하심, 뿌리쳐진 의로움, 가볍게 여겨진 긍휼이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적함으로, 그들의 구원이 되었을 모든 것이 오히려 그들의 파멸로 바뀌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위하여 정하신 모든 것이 그들에게는 죽음이 되었다. 유대인들의 그리스도 십자가 처형에는 예루살렘의 멸망이 함께 내포되어 있었다. 갈보리에서 흘려진 피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 모두에서 그들을 멸망으로 가라앉힌 무게였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한 자들에게 심판이 임하는 그 위대한 최후의 날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들의 거치는 돌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때에는 그들에게 보응의 산처럼 나타나실 것이다. 의인에게는 생명인 그 얼굴의 영광이 악인에게는 소멸하는 불이 될 것이다. 거절된 사랑, 멸시된 은혜 때문에 죄인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는 많은 비유와 거듭된 경고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보여 주셨다. 이 말씀들 속에서 그분은 모든 시대에 그분을 구속주로 영접하기를 거부하는 모든 이들에게 말씀하셨다. 모든 경고는 그들을 위한 것이다. 더럽혀진 성전, 불순종한 아들, 불의한 소작인들, 멸시하는 건축자들은 모든 죄인의 경험 속에 그에 상응하는 모습을 지니고 있다. 그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이 예고한 멸망이 그의 것이 될 것이다." 시대의 소망, 597-600.

다음 글에서 계속하겠습니다.